

화보

인도네시아



우리측 대표단 일행은 12월 5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 증진을 위해 협의하였다



우리측 일행이 인도네시아 방산전시회장을 둘러보면서, 안내장교로부터 진행된 방산품목별로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해외뉴스

濠洲, 북방방벽 건설

호주 의 군부는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해군이 서부 호주에 기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육군과 공군은 호주의 북부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하고 있다.

호주가 방어력을 북부에 집중시키고 있는데

는 3가지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 주변전략에 대한 호주의 인식과 호주의 북쪽 및 동쪽의 인접국가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파푸아 뉴기니아 및 태평양군도에 대한 방위 공약 그리고 예상되는 대륙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안한 것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호주의 방어전략은 그 자체를 방어하는 것보다 강대 동맹국과의 밀접한 관계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69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베트남에서 미국 군대의 철수를 결정한 사실은 호주에게 하나의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 철수의 결정은 1971년의 괄 독트린으로 발전되었으며, 닉슨은 이 선언에서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경찰관이 될수 없음을 천명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의 지역분쟁에서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호주는 전시에 합동군 사령관이 국방참모총장에게 보고할수 있도록 하는 지휘통제계통을 유지하도록 개편되고 있다. 합동군사령관 예하에는 3개의 작전사령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군·공군과 지상군이 그것이다. 새로운 전구급 합동군사령부중 첫번째로 북부사령부는 「강가루 89훈련」간 군 및 부대구조시험을 실시한바 있었다.

이러한 지휘구조의 기대효과는 아직도 평가 단계에 있다. 호주방위의 고질적인 한계는 7천7백만km²나 되는 광대한 국토에 비하여 1천6백25만명밖에 소수전문인력에 의존할수 밖에 없게 한다(예비군은 2만7천명)

따라서 군사장비 구입은 많은 수량의 2급품 보다는 소수의 최고품을 획득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F-18 Hornet를 채택한 것은 이 항공기가 다목적 접전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철학을 증명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여러가지의 획득정책은 호주군대가 숫적으로 우세한 적군을 우수한 기술과 훈련으로 패배시킨다는 가정에 결정된 것이다.

국방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국방장관은 『우리정부는 호주의 독자적인 방어력을 증대하는 국방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인접국 및 전통적인 우방과의 관계의 효율화에 있어서 우리의 안전성도 중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호주국립대학의 전략 및 방위연구소 소속의 폴 디브(Paul Dibb)가

1985년초에 호주 방어력의 중요검토를 한바 있음을 지적하였다.

디브의 보고는 1986년 6월에 출판되었는데 그 이전의 평가에 비하여 호주에 대한 잠재적 위협의 인식에 있어서 약간 다르면 특이한 바가 있다. 1987년 국방예산은 그러한 연구보고서의 호주군에 대한 기본적인 제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많이 수용하였다. 2백50억 호주달러에 이르는 투자계획이 그 예산의 골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집행될 것이다.

정부는 초수평선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 잠수함과 해상초계기를 이용한 외각 감시에 의존하는 외부단계를 시작으로 하는 3단계의 층을 갖는 방어전략을 수립하였다. 중간단계의 층은 타격항공기 지원을 받는 하-폰으로 무장된 Orion(P-3)으로 구성하였다. 반면에 내부 단계는 예비를 포함한 3군의 잔여 자산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2개의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특징의 하나이다. 그러나 최상의 장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방장관 비즐리(Bea Zley)가 바랬던 것과 디브(Dibb)의 보고서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확충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에 불착하고 있다.

1989년에 국방사령부에 피터장군과 국방장관 보좌관 토니 아이러스(Tony Ayres)의 합동 보고서는 비즈리에게 더이상 국방예산의 삭감은 있을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다음 10년간에 예산건축과 3가지 주요사업(잠수함, 구축함, 초수평선 레이더)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세기로 전환되기까지 국방지출의 의미심장한 감축이라는 과제는 대륙의 방어여부와 깊은 관계가 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호주방위군의 성장도 새로운 전략을 지원할 산업기지의 창출을 통한 강력한 경제건설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